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초속 3×10⁻⁷ 조

	일시	2026년 03월 25일(수) 18:00~18:50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원상혁 2371256	○
		김세훈 2371219	○
		윤환영 2371278	○
1주차	진도	도서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진도페이지: 007p. ~ 057p.
	토론 내용	<div data-bbox="525 598 1461 1122"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683 1140 1302 1173">[좌측부터 : 원상혁, 민경진교수님, 김세훈, 윤환영]</p> <p data-bbox="491 1227 1485 1301">SF단편소설 수록집, 김초엽-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1번째 단편소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p> <p data-bbox="491 1352 1461 1471">지구의 천재 바이오해커 '디엔'이 지구에서 활동을 종료하고 마을이라는 장애가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어낸 세계관에서 마을의 아이 데이지가 지구로간 순례자 중 일부가 지구에 남는지가 궁금해하며 소피에게 편지를 쓰는 줄거리.</p> <p data-bbox="491 1525 1490 1599">논제 : 순례자들이 지구에 남는다면 지구에는 차별이 없어지는 유토피아화 될 것이다.</p> <p data-bbox="491 1653 759 1686">찬성측 주장. (원상혁)</p> <p data-bbox="491 1695 1490 1854">디엔이 신인류 기술을 개발하며 어떤 존재에게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해준다는 바이오 기술의 모순에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에 마을이라는 고통과 불행의 개념만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설립하게 되었고 순례자들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지구를 방문하면 지구의 차별이 사라질 것이다.</p> <p data-bbox="491 1908 759 1942">반대측 주장. (윤환영)</p> <p data-bbox="491 1951 1490 2069">이미 지구에서 비개조인들이 주류 집단이 되어 생활하고 있다. 마을에서 순례자들이 아무리 지구로 온다고 해서 이미 과반수의 사람들이 형성하는 분위기를 바꾸지 못 할 것이다.</p>	

1주차	토론 내용	<p>반대측 반론. (김세훈) 이미 지구에서는 빈부 격차로 인해서 개조를 받지 못한 구 인류는 태풍과 자원이 적은 서부로 추방당하여 디스토피아 사회를 구축하며 살아가고 있다. 40년 전에도 이러한 생활이 되고 있는데 몇몇의 순례자들이 온다고 해서 비개조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p> <p>찬성측 반론. (원상혁) 이미 40년 전에도 마을에서 소피라는 릴리 다우드나의 딸이 지구에 방문 하였을 때 델피라는 서부인의 도움으로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 순례자의 방문이 지구에 영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순례자가 지구를 계속 방문하므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지구는 유토피아화 될 것이다.</p> <p>결론 마을의 설립자. 릴리 다우드나(디엔)에 차별 없는 고통과 불행이 개념만 존재하는 그러한 의도가 세대를 거듭 할 수록 잘 전해지면서 지구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사회적인 차별이 사라지는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다.</p>
-----	-------	--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초속 3×10^{-7}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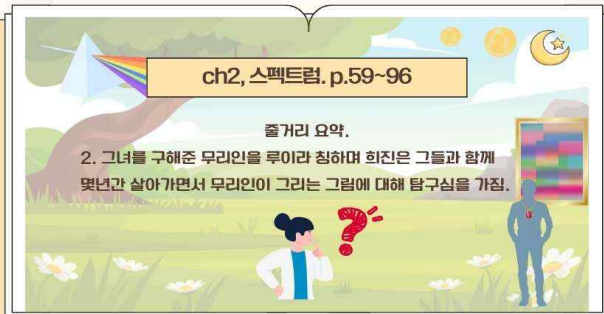
일시	2026년 04월 01일(수) 17:59~18:55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원상혁 2371256	○
	김세훈 2371219	○
윤환영 2371278	○	
진도	도서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진도페이지: 059p. ~ 143 p.	
2주차 토론 내용	 <p data-bbox="772 1178 1209 1211">[좌측부터 : 윤환영, 원상혁, 김세훈]</p> <p data-bbox="493 1263 1490 1379">선정 도서 2,3번째 단편도서 스펙트럼, 공생가설을 사전에 읽어 온 이후 대면 활동을 시작하여 토론을 진행할 단편 선정, 논제 구상 및 과학 용어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짐.</p> <p data-bbox="493 1435 1490 1637">토론 단편 선정 과정에서 2번째 목차 스펙트럼이 선정되었고, 후보 논제 중. 우주 비행사 희진이 외계 행성에 불지착하여 외계인 루이들을 만나 10년 이상의 유대를 형성하였다. "루이에게는 희진은 연구 대상을 넘어 유대 관계였다."라는 논제를 선정하여 찬반 토론을 진행.</p> <p data-bbox="493 1693 1490 2018">찬성측 (원상혁) : 루이는 희진이 아파할까봐 조심히 대하는 희진에 대한 공감의 행동을 하였고 다른 구성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희진도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가 전리품에 해당하는건지 경계심을 품었지만 대화를 시도하고 루이의 그림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유대를 쌓게 되었다. 루이가 수명의 한계로 인해 3~5년만에 죽어 다른 루이로 대체 되었을 때 다른 루이들도 전부 희진을 소중하게 대한 모습을 보았을 때 색채 언어로 작성된 그림에 내용에 희진을 소중히 대하라는 의미가 포함 되었다고 생각해 루이와 희진은 사적인 유대를 쌓았다는 주장.</p> <p data-bbox="493 2029 1490 2098">그저 상호 연구 관계였다면 지구로 돌아온 희진이 유리 공예품을 모으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p>	

2주차	토론 내용	<p>반대측 (김세훈, 윤환영) : 루이에게 그저 희진이 처음 보는 외계 생명체로 신기하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다른 외계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희진을 자기 과시용으로 데리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고</p> <p>만약에 루이가 희진을 사랑했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였을 것이며 루이들의 단명종의 한계로 인해 희진과 사랑에 빠질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다.</p> <p>루이의 역사 기록자의 직책을 고려하였어도 단순 사심이 아닌 직업 정신이 행동 근거로 판단된다.</p> <p>희진에게 보여준 친절한 행동들은 희진의 존재 자체가 매우 희귀하기에 어쩔 수 밖에 없이 행했던 신중한 연구 과정이었을 뿐이다.</p> <p>희진이 20년간의 공백을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50대 이후의 나이로 인한 기억력 감소로 외계 행성의 일들의 망각으로 인한 것이다.</p> <p>유리 공예품을 모은 것은 단지 타이타닉에 있던 여자 주인공처럼 과거를 추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취미일 뿐이다.</p> <p>찬성반대 아카데미식 정식 토론보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반론을 진행하는 식의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고</p> <p>찬성측 루이는 희진을 연구 대상을 넘어 유대 관계까지 발전하였다.로 결론</p> <p>아래 토론 과정에 사용된 자료 일부를 첨부합니다.</p>
-----	-------	--

ch2, 스펙트럼. p.59~96

줄거리 요약.

2. 그녀를 구해준 무리인을 루이라 칭하며 희진은 그들과 함께 몇년간 살아가면서 무리인이 그리는 그림에 대해 탐구심을 가짐.



2. 스펙트럼 : 생화학적 기본요소.

용어 설명

세포를 구성하는 유기분자는 이성질체가 있음.

인간을 구성하는 생체분자는

L형 아미노산과 D형 당으로 단백질과 핵산(DNA/RNA)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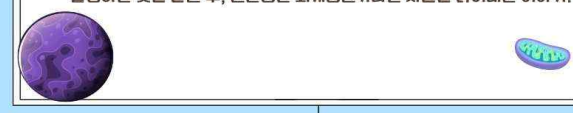
ch2 스펙트럼 논제.

1.
2.
3.

ch3, 공생 가설. p.99~143

줄거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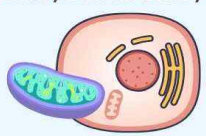
한국 뇌 해석 연구소의 연구원 수빈과 한나는 '생각-표현 전환 기술'을 연구하던 중 인간의 영유아기 뇌 속에는 '류드밀라' 행성에서 온 존재들이 활동하는 것을 발견 후, 인간성은 외계성인가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이야기.



3. 공생 가설: 세포 내 공생

용어 설명


Endosymbiotic theory



ch3 공생 가설 논제.

1.
2.
3.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초속 3×10^{-7} 조


	일시	2026년 04월 29일(수) 18:00~18:55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원상혁 2371256	○
		김세훈 2371219	○
		윤환영 2371278	○
	진도	도서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진도페이지: 147 p. ~ 218 p.	
3주차	토론 내용	 <p data-bbox="676 1140 1310 1173">[좌측부터 : 원상혁, 민경진 교수님, 윤환영, 김세훈]</p> <p data-bbox="493 1225 1426 1301">선정도서의 4,5 단편 소설을 읽고 4번째 소설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대한 독서 토론을 진행.</p> <p data-bbox="493 1352 1490 1514">왜 안나는 가족들이 살아올 가능성이 없는 슬렌포니아 행성계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짐. 후회, 미련,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행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결론이라는 이야기를 나눈 뒤 논제에 찬반 토론을 진행.</p> <p data-bbox="493 1565 1394 1599">논제 : 안나가 가려는 슬렌포니아 행성계를 먼 우주로 지정한 것은 옳다.</p> <p data-bbox="493 1650 1490 1771">찬성측 주장 (김세훈) : 우주 연방 정부는 효율을 추구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다수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는 것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월홀 항법이 발견된 시기, 먼 우주 재지정은 옳다.</p> <p data-bbox="493 1823 1410 1944">반대측 주장 (윤환영) : 우주여행 편성을 전부 독점을 하고 있는 우주 연방 정부는 구성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에 신중해야 하지만 단지 효율 목적으로 계도 기간 없이 먼 우주 재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p>	

3주차	토론 내용	<p>반대측 반론 (원상혁) : 우주 연방 정부가 우주 여행 경로를 전부 독점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인들의 피해는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그러한 보상도 없이 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 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도 해주거나 안나 같은 공무원까지 보상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p> <p>찬성측 반론 (김세훈) : 우주 여행 방식의 발전은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발전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반론. 계도 기간에 안나가 가지 못 한 것은 안나가 연구 발표를 위해서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보상을 해야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 먼 우주 재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다 새롭게 가까운 우주로 지정된 경로로 얻는 이득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슬렌포니아 행성계를 먼 우주로 지정한 것은 옳다.</p> <p>토론 결론으로 찬성측이 승리 하였습니다.</p> <p>아래 토론 과정에 사용된 자료 일부를 첨부합니다.</p>
-----	-------	--

ch4.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


즐거리 요약.

한때 냉동 수면 기술을 연구하던 연구원 "안나"는 남편과 아들이 있는 슬렌포니아 행성계에 가기 위해 5년간 폐기된 정거장에서 티켓을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온건 우주 여객 회사에서 철거를 위해 파견된 직원 뿐였고,



우주개척 패러다임 변경 과정.

- 1. 워프 항법.**
장점 : 원하는 위치에 워프 버블을 만들 수 있다.
단점 : 워프 버블 생성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시간 단축에 인간 수명에 한계가 있다.
- 2. 원홀 항법.**
장점 :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단점 : 이미 우주가 가지고 있는 통로만 사용 가능하다.




ch4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 논제.

1. 연방정부가 슬렌포니아 행성계를 먼우주로 지정한 것은 옳다.
2. 티켓을 평생 기다린 안나의 선택은 합리적이다.
- 3.

ch5, 감정의 물성.

즐거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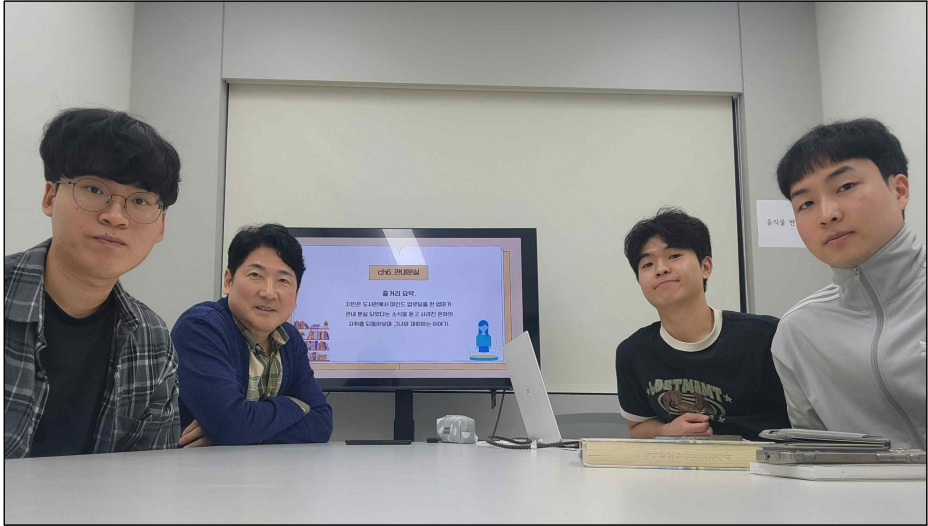
이모셔널 솔리드 유행했던 세상에서
우울체에 빠진 여자친구 보현과
보현을 이해를 하지 못한 정하의 이야기.



ch5 감정의 물성. 논제.

1. 소비의 감정 주체는 행복이 합리적이다.
2. 이모셔널 솔리드 상품은 사기이다.
- 3.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초속 3×10^{-7}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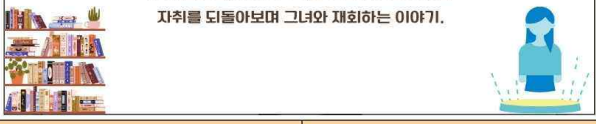
	일시	2026년 05월 06일(수) 18:00~18:40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원상혁 2371256	○
		김세훈 2371219	○
		윤환영 2371278	○
	진도	도서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진도페이지: 220 p. ~ 321 p.
4주차	토론 내용	 <p data-bbox="676 1144 1310 1176">[좌측부터 : 원상혁, 민경진 교수님, 윤환영, 김세훈]</p> <p data-bbox="493 1227 1490 1258">선정도서의 6,7 단편 소설을 읽고 6번째 소설인 "관내 분실"에 대한 토론을 진행</p> <p data-bbox="304 1312 1469 1344">토론 내용 논제 후보가 3개 전부 토론을 진행해보는 자유 형식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p> <p data-bbox="493 1397 1086 1429">1. 망자를 마인딩 업로딩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p> <p data-bbox="493 1440 1490 1599">반대 : 마인딩 업로딩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는 의견, 만약에 마인딩 업로딩을 기업이 진행하게 된다면 영리 추구 목적에 의한 기술이기 때문에 추억 팔이에 그칠 수 있다. 정부가 주체 한다면 누군가의 입김으로 인해서 망자 본연의 형태가 아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p> <p data-bbox="493 1610 1490 1686">인권의 잊힐 권리에 위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용자 동의가 없는 마인딩 업로딩이 발생 할 수 있다.</p> <p data-bbox="493 1740 1490 1856">찬성 : 마인딩 업로딩은 장례식처럼 특정 상황에서 유연장처럼 망자의 마지막 모습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작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사별에 대한 망자에 대한 예우에 좋을 것이다.</p> <p data-bbox="493 1868 1490 1944">역사의 기록이 남을 정도의 위인도 결국에 죽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업적을 기릴 때 마인딩 업로딩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p>	

4주차	토론 내용	<p>2. 마인드는 망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일 뿐이다.</p> <p>만약에 마인드가 망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되면 마인드를 삭제하는 행위는 살인 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논제.</p> <p>마인드가 아무리 망자와의 싱크로율이 높다고 생각되도 그저 데이터로 구성된 인공지능일 뿐이고 복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망자 본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p> <p>3. 은하가 지민에게 꺼낸 마지막 말은 무엇이였을까? 지민이 어릴 땐 은하를 이해하지 못 하였지만 나중에 이해한다는 말을 하였을 때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지 과연 은하는 본인이 죽어있는 상태를 인지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메타버스 서재에서 무슨 말을 하였을지 의견 나눔.</p>
-----	-------	--

ch6. 관내분실

즐거리 요약.

지민은 도서관에서 마인드 업로딩을 한 엄마가 관내 분실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라진 은하의 자취를 되돌아보며 그녀와 재회하는 이야기.




ch6 관내분실 논제 후보.

1. 망자를 마인드 업로딩을 하는것은 필요하다.
2. 마인드는 망자의 기억을 바탕으로한 인공지능일 뿐이다.
3. 마지막 은하가 지민에게 꺼낸 말은 무엇이였을까?

ch7,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즐거리 요약.

사이보그 훈련을 받으며 우상이었던 재경의 실종 미스터리를 파헤치던 가운데 결국, 재경이 바다로 함꼰 이유를 이해하며 자신만의 우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



ch7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논제.

1. 재경은 무슨 생각으로 바다로 떠난 것일까?
- 2.
- 3.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원상혁	<p>4주간의 독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2주차 때 진행하였던 2번째 단편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닌 다른 형태의 색채 언어를 사용하는 외계인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고 토론의 논제로 선정하지는 못해 아쉽지만 따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재밌었습니다. 단순 독서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발상이네라는 감탄을 한 뒤에 지나쳤을 주제이지만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독서를 하는 과정에 생긴 이런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한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을 4주간 보내게되었습니다. 도서 선정을 하였을 때 시험 기간을 고려하여 스토리가 1개로 이어진 작품은 공백기가 있을 경우에 몰입을 해칠 우려가 있어 옴니버스 식의 SF도서를 찾던 도중에 알게된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이었는데 다양한 시각의 과학 기술들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연결했던 도서라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p> <p>추가로 작가님과의 만남 시간에서 질문을 하지 못해 아쉬웠던 궁금증을 쓰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p> <p>촉각을 언어화 했던 진동새와 손편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색채 언어를 사용한 스펙트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각을 사용한 언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소리를 주체로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단어는 이산적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값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서 진동 언어와 색채 언어 모두 어떠한 형태로 구상하셨는지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p> <p>이상입니다.</p>
	2	김세훈	<p>독서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읽었던 책이었고 이 책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책으로 독서토론을 하게 되어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단편 소설들이 있어서 토론 주제로 쓸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p> <p>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1가지 주제는 관내분실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나온 주제였는데, '한 사람의 모든 기억과 감정, 사고가 담긴 데이터인 '마인드'는 있어야 하는 것인가?' 였습니다.</p> <p>단편적으로 저는 사랑하지만 죽어서 더이상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마인드라는 것으로 다시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서 토론을 하며 반대 의견을 들어보니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스위치가 꺼지고 거기서 끝이지 거기서 그 인간의 데이터를 모아 만든 마인드는 그저 인공지능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p> <p>실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통해 마음 속에 그 사람을 묻어두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으며 저 또한 저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서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p> <p>독서토론이라는 것을 성인이 된 이후에 해본 적이 없다가 오랜만에 해봐서 미숙한 점도 많았던 것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해 배운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등 여러가지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3	윤환영	<p>책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읽는데 부담이 없었으며, 오히려 소재 하나하나가 신선하고 몰입하기에 충분한 재미를 주는 대목들이었기에, 하나의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과학 관련된 책 이라고 하지만 사실 읽다보면 크게 과학을 잘 모른다고 해도 몰입이 깨진다거나 이해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중간마다 나오는 과학 상식에 과학을 안다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하고 더 알아보고 싶어지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소설이라는 점에서 다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과학을 꿈꾸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너무나 허무맹랑한 꿈같은 얘기가 아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만 같은 소재들을 이용한 것이 상상력과 흥미를 더욱 이끌어내게 했던 것 같다. 독서를 시작해보려는 사람, 과학을 잘 몰라 읽기 망설이는 사람,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뜻 읽어보라 나름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 책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p>